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5월 6일 조계사 대웅전 처마 밑 땃들. 양중맞은 하얀 고 무신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아래 사진). 고무신 안에는 현일, 현행, 현수, 현운, 현성, 현진, 현해, 현광, 현오, 현경, 현원 등 법명이 쓰여 있다. 속세의 이름을 버린 지 닷새째. 11명의 조계사 동자승들이 한 달 동안 속세의 연을 끊고 '스님'이 됐다.



“목숨 다하도록 술 마시지 마라. 이를 지키겠느냐” “예~!” 하하하-



개구쟁이들 스님 되다

조계사 동자승 선발에서 수계까지

행자입방식이 있던 4월 28일, 동자승 숙소 '안심당(安心堂)' 앞마당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스님들과 장난칠 때까지만 해도 생글거리던 아이들은 잠시 후, 배웅 나온 부모의 뒷걸음질에 '오양' 울음을 터뜨렸다. 방안을 뒹굴고 때를 쓴 지 1시간. 스님이 내민 사탕을 빨아 먹으며 이내 방글방글 웃는다.

출가기간 30일 동안 자비사절단 활동

며 오히려 손을 흔들며 보인다. 이튿날인 4일, 조석예불, 아침공양, 경전공부 부로 이어지는 빽빽한 일정에서도 동자승들은 어엿한 스님이었다. <반야심경>도 따라 읽고, 절도 하고 어른 스님들과 똑같이 절집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 둘 끄떡끄떡 졸음에 빠진다.

드디어 5월 3일 삭발식. “머리를 깎으십시오. 조용히 머리만 내밀어요.”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의 말이 끝나자, 아이들의 머리칼이 순식간에 잘려나갔다. “왕~왕~” 전기이발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대웅전을 메운다. 깎아 놓은 밤톱같이 하얀 민둥머리가 드러난다. 삭발 머리가 어색한지 연신 머리만 쓰다듬는 동자승들. 현문(박준오·6) 스님이 명선 스님(조계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에게 묻는다.

“나 이제 스님처럼 된 거예요?” “아니예요. 계를 받아야지요. 그래야 스님이 되는 거지요.” 이어 열린 수계식. 장난기어린 얼굴들이 자못 엄숙해진다. 가사를 수하고 합장한 두 손을 이마에까지 올린다. “계를 능히 수지하겠느냐”는 계사 지홍 스님의 물음에 큰 소리로 대답을 한다. 사미심계 중 다섯 번째, ‘불음주계’ 순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밀려드는 짐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경전공부 시간에는 스님 이야기에 아랑곳 않고 깜빡 잠이 든다. 저녁예불 풍경은 더욱 흥미롭다. 좌복에 앉자마자 하품이 쏟아진다. 푹탁 소리에 부처님께 절은 올리지만, 잠에 취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 둘 끄떡끄떡 졸음에 빠진다.

앞으로 동자승들은 10일 낙산어린이집 방문, 15일 축구대회, 23일 연등축제 등 각 봉축행사에서 ‘자비의 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오는 28일 환계식을 갖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간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nia.com



반야원 아이들이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든 등을 들어보이며 환히 웃고 있다.

불기 2548년 봉축 준비 현장 거제 반야원

“숨씨 서틀지만 자랑스러워요”

거제 중증장애인지원센터 반야원 (원장 도성) 원생들의 손끝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반야원 법당을 환히 밝힐 연등 만들기가 시작되면서 반야원을 찾는 지역주민은 물론, 자원봉사자의 손끝도 분개 물들기는 마찬가지다.

5월 3일, 연임을 풀고 연임을 빛고 철사틀에 종이를 붙이는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이

중증장애시설 원생들 자원봉사자·이웃어른과 함께 팔 걷어붙이고 연임 빛어

반야원이 위치한 동부면 인근 마을 주민들도 틀나는 대로 일손을 보태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주민들은 등 만드는 율력 동참은 물론 반야원 후원을 위해 기꺼이 등을 달기도 한다. 반야원이 피하고 싶은 장애시설이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하는 생활 복지 시설로 자리를 잡았다는 반증이다.

5월 14일 자원봉사자, 마을 주민, 원생들이 대거 참석하는 연등 만들기 행사를 기점으로 20일까지 300개의 연등을 만들어 법당에 달게 된다. 건물 외벽과 내부에 7백 개에 이르는 등을 달아 환하게 불을 밝히면 거제 동부면 마을의 봉축 준비는 막바지에 이른다.

5월 26일, 반야원 법당에서 원생들이 올리는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봉축 범요식만 남겨 놓은 반야원의 봉축 준비는 한자리에 틀러앉아 실재작이 많았지만 자원봉사자와 이웃 어른들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아이구, 참 잘 했네. 또 한번 거제=천미희 기자

Advertisement for Lotus Lantern Festival. Includes text: '연등축제 5월 23일 종로는 연꽃세상', 'Lotus Lantern Festival 5월 23일 종로는 연꽃세상', '등 전시회 봉은사 5월21일~26일', '연등놀이 조계사 앞길, 인사동 5월22일 오후7시', '불교문화마당 조계사 앞길 5월23일 12~8시', '어울림 마당 동대문운동장 5월23일 4시30분', '제등행렬 동대문-조계사 5월23일 오후7시', '대동 한마당 조계사 앞길 5월23일 오후 9시30분'. Also features cartoon characters and a large image of a lantern festival at night.